

2023.6.18 주일1부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롬 4:23-25)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라고 했다. 아브라함이 예수 믿어서 그 축복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롬4:23-25

창세기의 축복이 나도 위함이다.
요8:56

에도 그랬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 보다 크신 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 딱 붙잡고 응답 받았다. 이 창세기를 아주 잘 설명한 게 로마서다. 로마서에 원죄가 설명되어 있어요.

로마서.

롬5:12-14.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4:1-8.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창세기는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 하셨다. 그런데 1:27-28에 사람을 만드셨다. 자기 형상으로 축복하셨다. 인간을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에덴을 만드셨어요. 창2:8 보니까 에덴을 창설하셨다. 이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모든 걸 살렸다. 왜 그런가? 이 에덴이 하나님의 동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에덴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2:17에 중요한 걸 얘기하셨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마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해요. 이 언약만 안 지키면 에덴의 모든 충만함을 누렸단니까요.

창3:1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지요. 창3:1에 보니까 뱀이 나타났다. 뱀이 누구니까? 계12:9 보니까 사단 마귀 옛뱀 그랬다. 그럼 사단은 누군가? 원래 이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었다. 천사였습니다. 천사 중에도 장급되는 존재였다. 이게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놈이 이 마귀라. 이 천사도 피조물이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게 범죠행거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도장이었다. 하나님이 아주 뛰어난 피조물로 만들었다. 영이지요. 지혜는 총축하지요. 온전히 아름답지요. 그리고 에덴의 보석으로 단장했다. 그리고 온 동네를 무역하며 돌아다녔다. 이게 잘 하다가 미쳐버린거다. '아, 내가 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냐, 내가 하나님이다'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지옥에 가두기로 하신거다. 그래서 지옥을 예비했다.

이게 천사를 많이 속였다. 왜 중국에 귀신이 많나? 왜 그런가, 천사를 속였어요. 같이 타락했다. 그게 귀신이 되고 신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창조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만들어야 하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받을 존재를 만들어야 하는거다. 그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 나타난 거예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이 마귀가 나타나서 자기가 타락한대로 인간이 말씀 떠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창3:1-6에 하나님 떠나 버렸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다. 롬5:12-14에 이렇게 얘기한다. 한 사람의 범죠행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된거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거다. 석가는 왜 죽는 줄도 몰라. 지금도 석가 제자들이 왜 인간은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 명상하고 답을 못 찾았다. 성경에 답이 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거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된거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 버렸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창3:16-24 하나님 떠난 인간의 결과다.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린거다. 참 비참하지요. 인간 때문에 지구가 병든거다. 제일 나쁜 게 인간이다. 땅이 왜 저

주 받나? 인간 때문이다. 저주 받다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안 받아줘. 지옥 가야 한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다. 가인은 농사 지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응답 못 받는다. 저주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제일 두려운 게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다. 죽을까봐 두려운거다. 이래서 가인이 성을 쌓게 된다. 이게 도시의 시작이다. 도시를 왜 만드나? 죽을까봐 하는거다 사람들이. 옛날에 아무나 와서 칼 들고 와서 다 빼앗아 갔다. 그래서 성을 쌓잖아요. 가인이 성을 쌓는다. 에녹 성.

그리고 후손 가운데 라멕이 나온다. 라멕 아들이 세 명 있었다. 그 조상이 되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짐승을 키웠다. 그리고 수금과 통소 부는 자의 조상. 그리고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었다. 기술자라. 이 조상이 나온다.

불신자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라멕이 사람을 죽였어요. 왜냐면 어떤 아이가 자기를 찔렀다고 했어요. 찌르니까 자기도 정당방위 하는거야. 막다 보니까 죽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변호한다. 그리고 법을 만든다. 법의 시작. 법을 왜 만드나? 죽을까봐 만드는거다. 옛날엔 정권 바뀌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법을 강화시킨거다. 농사 짓는데 어려우니까 성도 쌓고 하는거다.

창6:1-8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지는거다. 인생에 중요한 위기가 오는거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하니까 네 피림에 빠져 버리는거다. 기도하는데 네 피림을 체험하기 지갈가는거다. 영적인 게 떨어져서 붙잖아요. 기차 타고 쪽 가는데 산마다 당을 만들어놔요. 왜냐면 저 서북 쪽에는 나무가 없어서 다 보여. 산마다 귀신이 그게 거짓말 입니까? 맞다. 영적인 게 산에 붙는다. 집에도 붙는다. 중요한 게 영적인 게 사람 뒤에 붙는다. 라마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잘 이해하셔야 한다. 이래서 완전히 홍수라는 재앙을 맞게 된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바벨탑 쌓는거다. 불안하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탑을 쌓자. 어마어마한 건물들 올려놨잖아요. 중국에 가보니까 북경도 건물 어마어마하게 올려놨어.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거. 또 노아시대처럼 다 죽어버리니까. 언어를 바꿔버렸다. 그래도 이게 언어가 다르니까 나온거지. 언어가 같아 보세요. 같으면 중국의 귀신문화 금방 들어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그나마 서서히 늦게 들어오는거다. 언어 같아보세요. 일본의 음란 문화가 금방 들어와요. 일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일본에 집사님이 그랬다. 목사님 일본, 큰일 났습니다. 어떤 여자가 포르노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작품이라며 토크쇼를 한다는거야. 그런데 그 토크쇼에 배우 아버지가 나와. 아버지가 나와서 이번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상이 감니까? 일본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이상해서 그러지 일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빨리 안 망하라고 언어를 막아버렸어.

불신자들이 이렇게 산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시도 만들고. 그런데 이래 가지고 위기가 안 옵니까? 더 큰 위기가 오는데. 기도하는데 길을 모르니까 귀신을 체험한다. 이래서 니므롯 같은 인물들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서 탑을 건설한다.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영성운동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탑을 세우고 있다. 망한단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찾아오신거다. 창3:15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롬3:21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전부 죄인인데 의인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와서 뭐 할 것이냐? 의인이 와서 단을 쌓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회복되는 방법은 제단을 쌓아놓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는거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중요할 때만 제단을 쌓았다. 첫 순교자 아벨이 피제사 드리다가 맞아 죽었다. 노아가 어떻게 한 시대를 살렸나? 피제사 드렸다. 어째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나? 피제사 드렸단니까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삭이 26:24-25에 단을 쌓았더라. 블레셋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시기하는데 그 속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야곱도 벳엘로 올라가서 단을 쌓았더라. 이 사람들이 이걸 했어요. 무슨 애긴가? 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

님의 어린양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그 한 사람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느니라. 이 아담의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나 죽으면 안 돼.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담당 시켰다.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담당하신 거 안 믿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거야. 사람들이 뭔가 죄의식 가지고 있어. 그런 십자가를 안 믿는거다.

그리고 성경이 땅 얘기를 하는거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이삭에게 '이 땅에 유하면'. 28:14엔 네가 누워있는 땅에. 요셉은 50장에 임종할 때쯤 돼서 부탁한다. 내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때 가져가 달라. 이 사람들은 뭇 때문에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바라봤나? 메시아 오실 땅이다. 메시아 오실 땅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임할 땅이다. 그리고 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중요하다. 메시아가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다.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식이 없을 때에. 이삭에게 그랬다. 22:17-18에 '네 씨로 말미암아' 야곱은 25:29-34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나? 아예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했다. 족보의 중요성을 안거다. 메시아가 오는 족보 속에 들어가는 거. 이걸 야곱은 깨달았다. 에서는 경솔히 여겼다.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너 가져'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 메시아의 족보 속에 있는 자. 38:1-16 이해 안 되는 성경구절이다. 길게 얘기했다. 무슨 애긴가? 유다가 자식을 낳았다니까요. 며느리를 봤는데 그게 다말이예요. 이 여자가 남편이 죽잖아요. 유다의 장남이 죽어버렸어. 그럼 다말은 과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보고 네 형수에게 가서 씨를 낳아라 한거다. 그런데 둘째 여자피 자식 낳아도 내 아들 아니다 하면서 사정을 밖에도 하는거다. 하나님이 악해서 죽인거야. 막내가 있는데 살려야겠다 싶어서 보내버린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말이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나타난다. 시아버지한테 나타나서 유다가 자기 부인 죽었잖습니까. 이래 가지고 유다가 어디 오는지 알고 창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거다. 이래서 유다와 관계를 갖는다. 완전 막장이다.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된다. 다말이 그냥 임신하면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유다한테 물건을 받는다. 나중에 임신한 사실 알고 물건 내놓잖아요. 내가 시아버지 당신의 아이를 가진 것이다. 유다는 더 웃는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무슨 애김니까? 메시아의 족보! 이 속에 다말이 들어간거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언약의 족보 속에 있느냐.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중요하다. 메시아 올 가운. 메시아 올 족보. 그래서 실제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속에 다말이 들어가있다.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네가 나 보다 낫다'

이 가운이 메시아 오실 가운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그 언약의 족보 속으로. 그럼 이 세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을 쌓는 거. 여자의 후손의 와서 십자가 지실 거라는거다. 이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족보. 이 세 가지 언약 붙잡은거다. 그래서 요14:6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 담당하고, 마귀를 꺾을 자는 하나님의 아들 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를 창15:6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롬3:27에 믿음의 법이다. 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담당하신 걸 믿으면 된다. 진짜 믿어야 돼요. 불신자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바뀌는거다. 진짜 예수 믿으면 복의 근원으로 바뀐다. 너를 건들면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창26:1-5이다. 이삭. 똑같이 농사 짓거다. 가인이 농사 지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 짓고 있는데 기근이 온거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 땅에 유하면' 뭐라고 했나?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기근이 오고 그래도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당장 세상에 내려가려고 해요. 아닙니다. 언약 잡고 죽으면 된다. 진짜 이삭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100년의 응답을 주셨다. 언약 잡고 죽으라 머리 쓰지 말고. 샘의 근원을 찾는다. 창28:10-15 야곱이다. 야곱 인생이 환란이 왔다. 형이 칼 들고 죽이려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중요한 걸 깨달았다. 언약 가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보좌를 봤다. 보좌에서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다. 지금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네피림을 체험한다. 노아시대 위기 왔는데 기도해보세요 길을 모르는데 귀신 나타나는거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탑 쌓는거 아니다. 창37:-11이다.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를 해와 달과 별이 절하게 할 것이다. 이걸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높이실 겁니다. 이 꿈이 있어야돼요. 비전. 세계복음화의 비전. 이걸 붙잡으셔야돼요. 꿈은 커야 된다고요.

류광수 목사님이 예전에 1천만 제자 놓고 기도하더라. 내가 시험 들더라. 내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야, 비전은 커야돼. 문제는 비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꿈이 없어요. 꿈 있는 사람의 걸음은 다르다. 꿈이 있는 자의 말은 달라요. 사람 얘기해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꿈이 없구나. 인생에 목적이 없어. 그냥 밥 먹기 위해 사는거다. 요셉은 꿈이 있었다. 세계복음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살겠다. 불신자가 이렇게 사는거지. 네피림 와서 귀신 들리고. 이래서 탐 쌓겠다고 난리치고. 아니예요.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그 문제 속에서 백년의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진짜 환란 오고 기근 와도 기도하면 보좌가 움직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걸 아브라함은 진짜 믿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시면 되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두 번째는 땅!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살리는거다. 씨! 내 자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것이다. 그게 중요한거다. 이번에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서 저는 괜찮아서 안 갔고, 우리 집사람, 둘째 막내하고 세 명이서 갔어. 막내는 학교 안 가고 간거지요. 이래서 병원에 있다가 얘기 그러는거 예요. 자기는 안 아프대. 간호사가 치료 받으라고 하니깐 안 아프대. 안 아프데 왜 병원왔냐 했더니 학교 가기 싫어서 병원 왔다. 학교 안 갔으니까 치료 안 받아도 된다. 그래도 된다. 제발 언약만 붙잡아다오. 공부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내 씨가 이 언약 전달의 축복을 저는 다른 거 안 바란다. 딸한테도 그랬다. "야,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대답이 "맞으니까 예배 드리지". 오케이. 이겁니다. 세 가지.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전도자의삶 Check List

전도자의 삶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계
오늘의전도	아침에 1전도기획 10점								
	자료를 전달하면 10점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제시 10점								
오늘의말씀	복음메시지를 듣거나 읽기 10점								
	하루에 성경 3장이상 읽기 10점								
	성구를 한 절씩 암송 10점								
기도의 내용을 적고 정시기도 10점									
10분이상 호흡 기도 10점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 10점									
공부, 독서 10분 이상 했으면 10점									
하루의 점수 합계 (100점 만점)									

대안예수교장로의 **죽전동부교회**

홈페이지 : rt7000.com 스마트폰: rt7000.com/smart
전화 : (070)8887-2691 / 팩스 : (031) 898-2690